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9. 5.(목)

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에 따라 신속히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결과 현대건설 주관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만 단독으로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었다고 밝혔다.
-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,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단	책임자	팀 장	홍복의 (044-201-5207)
		담당자	서기관 전문위원	김대현 (044-201-5208) 구현규 (044-201-4319)